

녹십자, 에스텍파마와 타미플루 공동개발

녹십자는 에스텍파마와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공동 연구개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12월 1일 공시했다.

녹십자는 타미플루 원료 생산기술을 확보한 에스텍파마와 공동개발기로 함에 따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녹십자는 제제연구와 안전성 및 임상시험, 완제품 허가등록 등 타미플루의 상품화를 담당하고, 에스텍파마는 원료합성과 분석, 규격설정, 원료의약품 허가등록 업무 등을 담당한다.

한편, 에스텍파마는 공시에서 “당사는 인산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녹십자는 제제화와 임상시험 등 제품화와 마케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조속한 상품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인 11월29일부터 3년간이다.

<화학저널 2005/12/02>